

「清芬室書目」考 [2]

— 특히 鶴山의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中心으로 —

朴 文 烈
(昌原經商專門大學)

B. 匡郭의 크기

匡郭의 크기는 單邊, 雙邊에서 나타나는 厚薄을 막론하고, 內側을 精密히 測定한 數値가 <表 7>과 같이 나타난다.

<表 7> 匡郭의 크기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長	廣
高	宗	1222~1391		16.7~24.0	11.5~18.0
太	祖	1397		20.0	14.0
定	宗	1399~1400		18.0~25.5	12.0~17.5
太	宗	1401~1418		16.0~24.0	11.5~15.5
世	宗	1419~1450		17.5~26.5	12.8~17.5
文	宗	1451~1452		19.5~26.0	15.0~17.5
端	宗	1453~1455		16.5~25.0	11.5~17.5
世	祖	1456~1468		16.3~25.5	13.0~19.0
睿	宗	1469		26.5~28.5	21.5
成	宗	1470~1494		18.0~28.0	14.0~25.0
燕	山	1495~1505		18.0~28.0	13.0~20.0
中	宗	1511~1544		13.0~27.5	11.4~21.5
明	宗	1546~1566		16.0~29.5	13.0~19.0
宣	祖	1567~1607		16.0~27.0	13.3~19.0
光	海	1610~1622		17.5~27.5	15.3~17.0
仁	祖	1628~1649		18.5~24.0	15.0~17.0
孝	宗	1651~1659		15.5~26.5	13.7~17.8
顯	宗	1660~1670		20.0~26.2	13.7~17.5
肅	宗	1675~1720		18.0~26.0	15.2~18.0
景	宗	1721~1724		21.4~25.0	14.7~18.0

英	祖	1725~1776	18.0~25.0	15.7~24.0
正	祖	1781~1798	22.0~26.5	14.8~18.8
純	祖	1822~1832	21.8~25.0	15.0~15.8
憲	宗	1846~1849	22.3~26.3	15.7~17.0
哲	宗	1854~1863	20.0~25.0	16.5~19.5
高	宗	1866~1900	20.0~22.8	14.5~16.4

〈表 7〉을 보면, 麗末鮮初, 즉 1222(高宗)年부터 朝鮮 初期인 1468(世祖)年까지는 冊의 形態가 작을 뿐만 아니라, 匡郭의 크기도 이에 比例하여 가장 큰 것으로는 長 26.5cm, 廣 19.0cm¹⁵⁶⁾이었고, 가장 작은 것으로는 太宗年間(1401~1418)의 長 16.0cm, 廣 11.5cm¹⁵⁷⁾까지의 小本이다.

多少 예외이기는 하지만, 睿宗朝에 있었던 1469年 刊의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¹⁵⁸⁾는 長이 26.5~28.5cm까지이고 廣이 21.5cm로서 極大의 크기이다.

1470(成宗)年부터 1670(顯宗)年까지는, 睿宗 年間に 極大化되었던 匡郭의 크기가 麗末鮮初의 小本보다 점차로 커져서 제일 큰 것으로는 長 28.0cm, 廣 25.0cm¹⁵⁹⁾이고, 제일 작은 것으로는 長 13.0cm, 廣 11.4cm¹⁶⁰⁾이다.

다음으로 1675(肅宗)年부터 1789(正祖)年까지의 板本の 匡郭의 크기를 보면 睿宗 年間보다는 작지만, 그러나 작은 것으로는 長 18.0cm, 廣 14.7cm¹⁶¹⁾까지이고, 큰 것으로는 長 26.5cm, 廣 24.0cm¹⁶²⁾까지이니 前者에 비해 比較的 크다.

1822(純祖22)年부터 1900(光武4)年까지는 漸次로 다시금 匡郭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하여, 가장 작은 것이 長 20.0cm, 廣 14.5cm¹⁶³⁾이고, 그 사이의 큰 것으로는 長 26.3cm, 廣 19.5cm¹⁶⁴⁾로 다시금 작아지는 傾向이다.

이상 敍述한 것을 다시금 綜合해 보면, 麗末鮮初本の 匡郭의 크기는 小本이었으며, 成宗 이후는 점차 커졌고¹⁶⁵⁾, 肅宗, 景宗, 英祖, 正祖 年間에는 가장 컸으며, 純祖 이후는 다시금 작아 졌으나, 다만 例外로는 睿宗 年間に 한해서 極大本이 刊行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 界

界는 活字本, 木板本을 막론하고 書法의 體制上 行의 維持와 版의 均衡을 考慮한

156-157) 表 7. 匡郭의 크기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158) 李仁榮. *op. cit.* p. 203

159-164) 表 7. 匡郭의 크기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165) 이 論에 대하여는 一般의 初鑄甲寅字부터 커지기 시작하여, 世祖年間에 刊行된 國譯書의 活字가 가장 컸으므로 따라서 匡郭의 크기도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것으로서, 그 有·無를 보면 <表 8>과 같다.

<表 8> 界 (『淸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界	朝 代	年 代	界	朝 代	年 代	界
高 宗	1222	有	睿 宗	1469	有		1590	無
	1243}	無	成 宗	1472	有		1591}	有
恭 愍	1361}			1475	無		1608}	
禑 王	1378	有		1476}	有	光 海	1610}	有
	1387}	無		1493}			1622}	
恭 讓	1391}		燕 山	1496	有	仁 祖	1628}	有
太 祖	1397	有		1500	無		1648}	
定 宗	1399}	無		1501}	有	孝 宗	1651}	有
	1400}			1502}			1659}	
太 宗	1401	無	中 宗	1511}	有	顯 宗	1661}	有
	1404	有		1538}			1670}	
	1406	無		1539}	無	肅 宗	1675}	有
	1415	有		1540}			1713}	
	1418	無		1541}	有	英 祖	1727}	有
	1419}			1544}			1773}	
世 宗	1447}	有	明 宗	1546	無	正 祖	1781}	有
	1451}			1547}	有		1798}	
文 宗	1452}	有		1549}		純 祖	1822}	有
	1453}			1555	無		1832}	
端 宗	1454}	有		1566	有	憲 宗	1846}	有
	1454}			1567}			1849}	
世 祖	1456	有	宣 祖	1572}	有	哲 宗	1854}	有
	1457	無		1574	無		1859}	
	1458	有		1575	有	高 宗	1866}	有
	1460	無		1576	無		1900}	
	1461}	有		1577}	有			
	1465}			1585}				

版式 中에서의 界는 高麗 高宗 때부터 이미 있었으며, 恭愍王 때 없다가 禑王 때 다시 있고¹⁶⁶⁾, 恭讓王 때 다시금 없어지는 奇現象이 있는가 하면¹⁶⁷⁾, 朝鮮朝에 들어 와서도, 貴重本으로 推定되는 宣祖年間 이전 本은 대체로 界의 有·無가 混有되어 있으나¹⁶⁸⁾ 光海君 이후부터는 계속 界가 있어 왔다.¹⁶⁹⁾

따라서 界로서 刊年을 推定한다면, 有界일 경우 光海君 이후로 우선 보고, 特殊事項에서 年代를 麗末까지 遡及해서 現物을 實證할 수 밖에 없다.

D. 行 字

行·字數는 冊의 크기와 字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現象이 <表 9>와 같이 나타난다.

166-169) 表 8. 界 및 附錄 1. 『淸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表 9〉 行 字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行	字	朝 代	年 代	行	字
高麗	1222~1391	8~12	17~21	宣祖	1567~1607	6~12	11~24
太祖	1397	13	24	光海	1610~1622	8~10	17~21
定宗	1399~1400	10~11	17~20	仁祖	1628~1649	8~12	17~24
太宗	1401~1418	8~13	17~24	孝宗	1651~1659	8~11	18~21
世宗	1419~1450	8~16	16~25	顯宗	1660~1670	8~10	14~18
文宗	1451~1452	8~10	18~20	肅宗	1675~1720	10~12	17~22
端宗	1453~1455	8~11	17~21	景宗	1721~1724	10	17~20
世祖	1456~1468	9~15	15~23	英祖	1725~1776	6~13	17~24
睿宗	1469	7	17	正祖	1781~1798	10	18~20
成宗	1470~1494	4~21	8~21	純祖	1822~1832	10	20~22
燕山	1495~1505	9~11	16~21	憲宗	1846~1849	10	20~21
中宗	1511~1544	8~20	13~21	哲宗	1854~1863	10	20~22
明宗	1546~1566	8~20	15~21	高宗	1866~1900	10~12	20~24

원래 行·字數는 木板本에 있어서는 한 두 字의 伸縮이 있을 수 있으나, 活字本에 있어서는 伸縮이 거의 없다.

大部分이 麗末에 있어서는 10行 17字 내지 11行 20字였으나¹⁷⁰⁾ 鮮初에 들어 오면서 太祖 때에는 갑자기 13行 24字로 되었다가¹⁷¹⁾, 定宗 年間に 와서는 10行 17字 내지 11行 20字로서 多少의 變動이 있었다.¹⁷²⁾

世祖 年間에는 대체로 8行부터 16行까지 多様な 現象이 보이고, 이에 따라 字數도 15字에서 21字까지로 되어 있으며¹⁷³⁾, 睿宗 年間에는 단 1種이지만 7行 17字 本¹⁷⁴⁾이 있어 特殊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成宗 年間에도 역시 4行 8字 本¹⁷⁵⁾이 있어 注目の 對象이 되고 있다.

燕山朝부터 肅宗 年間까지는, 대체적으로 行·字數가 太宗부터 世祖 年間 것과 類似的한 것으로, 작게는 6行 11字로부터 크게는 10行 24字 本까지 있을 뿐이다.¹⁷⁶⁾

景宗 이후의 板本을 보면, 그 行·字數는 麗末鮮初를 彷彿케 하듯 英祖 年間の 6行 24字만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0行 20字 内外가 普通이다.¹⁷⁷⁾

따라서 行·字數에서 보면, 麗末鮮初에는 比較的 적은 편이고, 景宗 이후 刊本은 比較的 行·字數가 많은 편이다.

170-172) 表 9. 行 字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173) 表 9. 行 字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174) 李仁榮. *op. cit.* p.203.

175) *ibid.* p.141.

176-177) 表 9. 行 字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Ⅴ. 黑 口

板口(板心)는 書葉이 접혀지는 곳을 말하며¹⁷⁸⁾, 板口의 正中에 있는 墨線을 黑口라 할 때에 墨線이 없는 것은 一般的으로 白口라 일컫는다.

<表 10> 黑 口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口	朝 代	年 代	口
高 宗	1222	白		1502	黑
禡 王	1378	黑	中 宗	1511]	〃
恭 愍	1391	〃		1518]	〃
太 祖	1397	〃		1519	〃
定 宗	1399	黑·白		1520	黑·白
	1400	黑		1525]	黑
太 宗	1404	〃		1531]	黑
	1415	〃		1531	白
世 宗	1422]	〃		1532]	黑
	1436]	〃		1533]	黑
	1439]	〃		1536]	〃
	1447]	〃		1544]	〃
文 宗	1451]	〃	明 宗	1546]	〃
	1452]	〃		1549]	〃
端 宗	1454	〃		1555]	〃
世 祖	1456	〃	宣 祖	1562]	〃
	1462]	〃		1575]	黑
	1465]	〃		1577]	黑
	1465	白		1581	〃
成 宗	1472]	黑	光 海	1616	〃
	1474]	黑	仁 祖	1643	黑·白
	1475	黑·白		1645	黑
	1478]	黑	孝 宗	1651]	黑·白
	1482]	黑		1652]	黑·白
	1484]	〃	顯 宗	1670	黑
	1485]	〃	英 祖	1744	〃
燕 山	1496	〃			

<表 10>에서는 大黑口와 細黑口の 區別은 없으며, 墨線이 없고, 板口의 正中에 刻字한 事項인 花口에 대한 詳細한 事項도 記錄되어 있지 않다.

또한, 高麗 高宗 때인 1222年과 朝鮮 世祖朝인 1465年 및 中宗朝인 1531年 宣祖朝인 1572年만이 白口本이 있었을 뿐¹⁷⁹⁾, 그 밖에는 定宗朝인 1399年, 成宗朝인 1475

178) 屈萬里, 昌彼得 共著, 圖書板本學要略,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 67(1978). p.107.

年, 中宗朝인 1520年, 仁祖朝인 1643年 및 孝宗朝인 1651年과 1652年 등에 限해서 黑口와 白口가 混合되어 한 册子를 이룬 것이 나타난다.¹⁸⁰⁾

그 外의 것을 보면 모두 黑口本이다.¹⁸¹⁾

F. 魚 尾

魚尾는 板口의 中間에 位置한 것¹⁸²⁾으로서, 花紋의 數에 의하여 數대로 魚尾를 붙이는데, 鶴山의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魚尾를 보면 <表 11>과 같다.

<表 11> 魚 尾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魚	尾
高麗	宗	1243		上	
麗	末			無·上	
麗	末 鮮		初	上下	
文	宗		朝	上下	
世			祖	上下	1465
宣			祖	上下	1567
壬	辰 亂		前	上下	
中	宣		間	上下	
宣	光		間	上下	
英			祖	上	1745
正			祖	上	1791
哲			宗	上	1855

「清芬室書目」에 나타나는 魚尾 表示의 數는 540種 중에서 12種에 限해서 만이 魚尾의 表示가 있다.

그 表示를 보면 高麗 高宗朝인 1243년에 上魚尾가 있었다¹⁸³⁾고 했고, 막연히 高麗라 하고 刊年을 推定한 册 속에 魚尾가 없는 것¹⁸⁴⁾도 있고, 上魚尾만 있는 것¹⁸⁵⁾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麗末鮮初부터 宣祖朝까지는 上下에 모두 魚尾가 있었고¹⁸⁶⁾, 英祖부터 哲宗朝에 이르기까지는 上魚尾만이 있었다¹⁸⁷⁾고 되어 있으며, 中宗朝부터 光海朝에 걸치는 사이에 上下魚尾가 있었다¹⁸⁸⁾고 되어 있다.

그러나 上下 下向魚尾인지, 上下 內向魚尾인지, 몇 葉 花紋魚尾인지는 表示되어

179-181) 表 10. 黑口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182) 屈萬里, 昌彼得 共著. *op. cit.* p.107.

183-188) 表 11. 魚尾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있지 않다.

G. 紙 質

紙質은 板本の 鑑定 中에서 刊年을 推定하는 데 있어서 重要な 資料로 되어 있다. 鶴山의 記述을 보면 <表 12>와 같다.

<表 12> 紙 質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紙	質
高		宗	1243	藥精	
麗	末	鮮	初	褐	
世		宗	1425	楮	
文		宗	1451	慶尙道公文書休紙	
			1452	壯. 世祖朝刊本과 同一	
世		祖	1465	藥精	
成	中	間		//	
中	明	間		//	
中	宣	間		//	
肅		宗	1693	北黃	
正		祖	1781	壯厚	
			1794	唐	
			1798	//	

紙質에 있어서는 高麗 高宗 年間에는 藥精紙를 썼고¹⁸⁹⁾, 麗末鮮初에는 麻를 材料로 하여 만든 褐紙를 썼다.¹⁹⁰⁾

世宗 年間부터는 닥나무(楮) 껍질을 材料로 해서 만든 楮紙의 表示¹⁹¹⁾가 있는가 하면, 文宗 年間인 1451년에 「通村隨詠」 2卷 1册 本이 慶尙道 公文書의 休紙로 刊行¹⁹²⁾되었다고 하고 있고, 1452년에는 壯紙를 썼다¹⁹³⁾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質이 좋지 못한 닥나무 껍질을 材料로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紙質이 좋지 않고, 厚朴한 것이었으며, 世祖朝의 刊本과 同一하다¹⁹⁴⁾는 表示는 藥精紙를 말함이다.

그 다음 1465년에 藥精紙를 썼는가 하면¹⁹⁵⁾, 肅宗年間에는 北黃紙를 썼고¹⁹⁶⁾, 正祖 年間에는 紙質이 壯厚하다¹⁹⁷⁾고 되어 있으니, 이는 두꺼운 壯紙로서 刊行되었다는 뜻일 것이며, 당시에 唐紙도 많이 썼던 것 같다.¹⁹⁸⁾

189-190) 表 12. 紙質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191) 表 12. 紙質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192) 李仁榮. *op. cit.* pp.80~81.

193-199) 表 12. 紙質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또한 그 뿐만 아니라 成宗年間부터 宣祖年間까지는 주로 藥精紙를 많이 썼던 듯하다.¹⁹⁹⁾

여기서 보면, 주로 貴重本으로 推定되는 宣祖 25年 이전의 刊本들은 대체적으로 藥精紙를 많이 썼고, 간혹 褐紙, 壯紙, 楮紙를 썼으며, 正祖 年間に 와서는 唐紙를 쓴 듯하다.

H. 刻 手

刻手도 또한 板本을 鑑定하는데 主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鶴山의 調査에 의하면 <表 13>과 같다.

<表 13> 刻手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刻	手
高麗	宗	1243		○	
				○	
				○	
太祖	宗	1397		○	
				○	大德明昊
世宗	宗	1418		○	
				○	
				○	
				○	
				○	
世宗	宗	1419		○	
				○	
				○	
世宗	宗	1433		○	
				○	
燕山	宗	1457		○	
				○	
中宗	宗	1500		○	
				○	
中宗	宗	1536		○	
				○	
				○	
				○	
				○	
明宗	宗	1537		○	
				○	
明宗	宗	1539		○	
				○	
				○	
明宗	宗	1544		○	
				○	
明宗	宗	1547		○	
				○	
				○	
明宗	宗	1555		○	
				○	
宣祖	祖	1562		○	李末之
				○	
				○	
宣祖	祖	1574		○	
				○	
宣祖	祖	1576		○	
				○	
宣祖	祖	1581		○	學崇
				○	
光海	海	1610		○	
				○	

高麗의 高宗, 朝鮮의 太祖, 太宗, 世宗, 世祖, 燕山, 中宗, 明宗, 宣祖, 光海君까지에 나타난 것을 記入한 중에서 다만 刻手の 有無만을 記入한 것이 大部分이다. 이는 卷末에 表示된 施主 또는 助緣者의 表記 속에 混合되어 明記²⁰⁰⁾되어 있다.

200) 表 13. 刻手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이에 대한 具體的인 것을 보면 太宗 年間に 刊行된 「首楞嚴經」 10卷 5冊의 卷末에는 ‘大德明昊’²⁰¹⁾라 記入되어 있고, 明宗 年間に 刊行된 「東國輿地勝覽」 殘本 3卷 1冊의 卷末에는 ‘李末之’²⁰²⁾라 記錄되어 있고, 宣祖 年間に 刊行된 「標題句解孔子家語」 3卷 2冊의 卷末에는 ‘學崇’²⁰³⁾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刻手들은 初刊本일 경우, 確實히 刊年을 推定하는데 重要的 要素로 되어 있다.

I. 字 體

字體 또한 刊年의 推定에 있어서 相當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鶴山은 字體를 <表 14>와 같이 보고 있다.

<表 14> 字 體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字	體
高	宗	1243		蒼勁	
麗	末	鮮	初	奇古·端雅	
太	祖	1397		似歐陽	
太	宗	1404		適勁	
文	宗	朝		訓鍊都監初刊本	同
世	祖	1462		精雅	
明	宣	間		古體	
英	祖	1744		極楷正	

高麗 高宗 때의 字體는 蒼勁하고²⁰⁴⁾, 麗末鮮初의 字體는 奇古하고도 端雅하며²⁰⁵⁾, 朝鮮朝 太祖 때에 刊行된 「開國原從功臣沈之伯錄券」 1卷 1軸은 歐陽詢體와 비슷하다²⁰⁶⁾고 되어 있고, 太宗年間 1404年 刊의 「牧隱詩藁」 殘本 7卷 3冊은 適勁하다²⁰⁷⁾고 되어 있으며, 世祖 年間の 것은 精雅하고²⁰⁸⁾, 英祖 年間の 것은 극히 楷正하다²⁰⁹⁾고 되어 있다. 明宗, 宣祖 年間の 것은 古體²¹⁰⁾라고만 되어 있을 뿐, 누구의 筆體, 어느 傾向, 어떤 影響 등은 敘述되지 않아 아쉬운 感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刊年의 推定에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201) 李仁榮. *op. cit.* pp.189~190.

202) *ibid.* pp.20~21.

203) *ibid.* pp.253~254.

204-205) 表 14. 字體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206) 李仁榮. *op. cit.* pp.245~256.

207) *ibid.* p.84.

208-210) 表 14. 字體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J. 避諱

避諱 또한 刊年推定에 있어서 相當히 좋은 資料로 提示되고 있다. 鶴山은 이에 대하여 <表 15>와 같이 보고 있다.

<表 15> 避諱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朝 代	年 代	避 諱	備 考
高 宗	1243	武·堯	
禡 王	1387	武	
麗末鮮初		武·礎	
鮮 初		高麗諱	} 覆刻本으로 看做되나 「清芬室書目」에서 는 이의 明示가 없음.
世 宗	1440	武	
中宗以前		賦	} 覆刻本
中宗朝		武	

高麗 高宗, 禡王, 麗末鮮初에는 武와 堯 및 礎字가 避諱되었고²¹¹⁾, 朝鮮初에도 高麗時代의 王朝를 避諱한 것이 있으며²¹²⁾, 朝鮮朝에 들어와서 世宗, 中宗 年間に 刊行된 「樊川文集夾註」²¹³⁾ 4卷 2册과 麗末鮮初의 覆刻本인 「三國史記」倣本 32卷 5册은 武字를 避諱²¹⁴⁾하고 있고, 中宗 이전으로 刊年이 推定되는 覆刻本 「桂苑筆耕集」 20卷 2册은 賦字를 避諱²¹⁵⁾하고 있다.

이것 역시 刊年の 推定에 있어 一助가 된다.

K. 活字別 特性

活字에 대하여는 先學들의 論及이 相當히 많은 편으로 別論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鶴山 自身이 「清芬室書目」에서 論及한 事項들을 보면 <表 16>과 같이 注目되는 바도 있다.

一般的으로 活字가 鑄造된 時期는 알 수 있으나, 그것을 언제까지 썼는가는 活字本을 調査하지 않는 한 上限과 下限을 알 수 없다.

<表 16>에서 提示된 것을 보면 이 點에 매우 有用할 듯하다.

211-212) 表 15. 避諱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213) 李仁榮. *op. cit.* pp.224~225.

214) *ibid.* pp.1~2.

215) *ibid.* pp.73~74.

〈表 16〉 活字別 特性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活字名	朝代	年度	匡郭의 種類	匡郭의 長	匡郭의 廣	界	行	字	註	黑口	魚尾	字	經
癸未	太宗		左右雙	23.5	15.5	有	8	17	雙22				大字: 1.3×1.5
			"	"	15.0	"	"	"	"	"			小字: 1.0×0.7
庚子	世宗	1422	單	24.0	15.3	"	11	22	雙	黑			
		1425	雙	23.0	"	"	"	"	"	"			
		1429	"	"	"	"	"	10	21	"	"		
		1430	"	"	"	"	"	11	"	"	"		
			"	"	"	"	"	"	"	"	"		
			"	"	"	"	"	"	19	×	×		
			單	20.0	11.7	大有 小無	8 16	18 18			黑		
甲寅	世宗	1436	雙	26.5	17.5	有	10	18	雙				
		1438	"	"	"	"	"	"	"				
		"	"	"	"	"	"	"	"				
	端宗	1453	單	25.0	"	"	"	"	17	×			
		1457	"	"	"	"	"	"	"	雙			
	世祖	1458	"	"	"	"	"	"	"	×			
		1458	雙	22.0	16.0	"	8	"					
	成宗	1472	單	22.5	19.0	"	21	15			"		
		1488	雙	25.0	17.5	"	10	17					
			單	22.0	15.5	"	8	15	雙				
	燕山		"	25.0	17.5	"	10	17	"				
		"	"	"	"	9	"	"	"				
		"	27.0	20.0	"	11	18	"	"				
中宗	1518	雙	"	18.0	"	10	"						
	1542	"	25.5	"	"	"	17			"			
庚午	文宗		單	22.0	16.5	"	9	15	雙		上下		
乙亥	世祖	1461	"	"	15.5	"	"	17	雙				
		"	"	"	"	"	大6 9	12 17	"				
	成宗	1474	雙	22.0	"	"	9	17					
		1482	"	27.5	20.5	"	大9 11	15 21	雙				
		1487	單	25.0	17.2	"	10	19	雙				
		"	"	22.0	15.5	"	9	17			大字: 方 1.9		
		"	"	"	"	8	"	雙			中字: 1.2×1.5		
		"	20.5	13.0	"	14	16				小字: 1.0×0.7		
	"	20.0	13.5	"	15	15							
中宗	1512	"	22.0	15.5	"	9	17		"				
	1518	雙	23.5	17.5	"	10	18		"				

		1543	〃	24.0	17.0	〃	〃	〃		
	明宗	1549	單	22.0	15.5	〃	〃	9	17	
	宣祖	1575	雙	24.0	17.0	〃	〃	10	18	雙 黑
		1577	〃	25.5	17.5	〃	〃	〃	19	〃 〃
乙酉	成宗	1486	單	22.0	15.7	〃	〃	13	21	
甲辰	成宗	1485	雙	21.0	15.0	〃	〃	12	19	〃
		1493	〃	20.7	〃	〃	〃	〃	〃	〃
			〃	20.5	15.5	〃	〃	〃	〃	〃
			單	〃	11.8	有無	有	19	19	〃
	燕山	1496	雙	20.7	15.0	有	無	12	19	〃 〃
	中宗	1535	單	25.8	〃	〃	〃	〃	〃	〃
			〃	22.5	〃	〃	〃	20	21	〃 〃
			〃	20.8	〃	〃	〃	12	19	
			單	22.5	15.5	〃	〃	〃	20	
			雙	21.0	〃	〃	〃	〃	19	
			〃	23.0	〃	〃	〃	〃	21	〃 〃
	明宗	1555	〃	24.5	16.8	〃	〃	13	22	〃
		1556	〃	22.3	15.7	〃	〃	12	20	〃
		1558	雙・單	21.0	15.5	〃	〃	12	19	〃 〃
	宣祖	1567	雙	25.0	17.5	〃	〃	10	17	〃 上下
			〃	22.5	15.5	〃	〃	〃	20	〃
癸丑	成宗		〃	28.0	18.0	〃	〃	8	16	雙21 〃
	燕山	1502	〃	〃	〃	〃	〃	〃	〃	雙22 〃
	中宗	1531	〃	27.5	〃	〃	〃	〃	〃	雙21 白
丙子	中宗	1535	〃	22.0	15.0	〃	〃	10	19	雙
		1536	〃	24.4	17.5	〃	〃	12	21	
			雙・單	23.5	16.0	〃	〃	11	20	〃
			雙	23.2	15.5	〃	〃	10	〃	〃
	明宗		〃	24.0	16.5	〃	〃	11	〃	〃 黑
	宣祖	1575	〃	25.5	19.0	〃	〃	13	22	〃
改鑄甲寅	宣祖	1583	〃	26.0	17.8	〃	〃	10	17	
		1585	〃	26.5	〃	〃	〃	〃	18	
		1591	〃	25.5	〃	〃	〃	〃	19	
			〃	26.2	18.0	〃	〃	〃	〃	
			〃	27.0	〃	〃	〃	〃	18	
			〃	26.5	17.5	〃	〃	〃	〃	
			〃	〃	17.7	〃	〃	〃	17	
芸閣活字	景宗	1721	單	25.0	18.0	〃	〃	10	17	
	純祖	1822	雙	21.8	15.0	〃	〃	〃	20	

大字：方 0.9
小字：0.6×0.5

丁酉字	正祖	1781	雙	26.5	18.8	〃	〃	18		
		1784	單	25.0	18.0	〃	〃	〃		雙
		1788	〃	〃	〃	〃	〃	〃		
生生字	正祖	1794	雙	22.0	15.0	〃	〃	20	大字: 方 1.1 小字: 0.7×0.6	
整理字	正祖	1798	〃	〃	14.8	〃	〃	〃		
雲峴活字	高宗	1866	單	21.5	15.8	〃	〃	〃		

즉 癸未字는 太宗 年間에 限定되어 쓰여졌지만²¹⁶⁾, 庚子字는 1443(世宗朝)년까지 쓰여진 것²¹⁷⁾으로 되어 있고, 甲寅字는 1436(世宗朝)부터 1542(中宗朝)년까지 계속 쓰여진 것²¹⁸⁾으로 되어 있으며, 庚午字만은 文宗朝에 限定되어 쓰여진 것²¹⁹⁾으로 되어 있다.

乙亥字도 世祖 年間부터 宣祖 때까지²²⁰⁾ 쓰여졌으며, 乙酉字 역시 成宗 年間²²¹⁾에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甲辰字도 成宗 年間부터 宣祖 年間까지²²²⁾ 쓰여졌고, 癸丑字는 成宗朝부터 中宗朝까지²²³⁾, 丙子字는 中宗朝부터 宣祖朝까지²²⁴⁾ 쓰여졌으며, 改鑄甲寅字는 宣祖 年間²²⁵⁾, 芸閣活字는 景宗·純祖 年間²²⁶⁾, 丁酉字와 生生字 및 整理字는 正祖 年間²²⁷⁾, 雲峴活字는 高宗 年間²²⁸⁾에 각각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점이 板本の 鑑識上 留意해야 할 點의 하나이며, 界가 있는 것이 木板本과는 다른 點이고, 또한 板口에서 中宗年間の 「新增東國輿地勝覽」 殘本 3卷 1册 本²²⁹⁾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黑口本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活字本の 刊年推定에 있어 上限과 下限點이 밝혀진 것은 古書鑑定上 매우 注視될 일이다.

이상에서 論及된 것을 다시금 要約하여 그의 親筆인 메모와 對比하여 그 特徵을 推測해 보면 <表 17> 및 <表 18>과 같다.

<表 17>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古書鑑定の 基準

事項	時代			備	考
	高	麗	壬辰亂前		
形態	匡郭의 크기 小	匡郭의 크기 小	匡郭의 크기 中	匡郭의 크기 大	
行字	小	小	小	多	
版式	無界>有界	無界>有界	有界	有界	
	上魚尾	上下魚尾	上魚尾	上魚尾	
	有刻手	有刻手	無刻手	無刻手	
	四周單邊	四周單邊	四周單邊	四周單邊	

216-224) 表 16. 活字別 特性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225-228) 表 16. 活字別 特性 및 附錄 1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行款 參看.
229) 李仁榮. *op. cit.* pp.263~264.

字 體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左右雙邊	左右雙邊	左右雙邊
紙 質	黑口>白口	黑口>白口	黑口>白口
	蒼勁 奇古	古朴 端雅 遒勁 似歐陽 精雅 古體	極楷正
	藥精 褐	藥精 楮 壯	北黃 唐

〈表 18〉 親筆 메모에 나타난 古書鑑定の 基準

事項	時代	高 麗	壬 辰 亂 前	壬 辰 亂 後	備 考
形 態	小本		漸大(成宗以後)	大本	肅宗·英祖·正祖時：最大 袖珍本：科擧用韻書
版 式	無界 上魚尾 小魚尾 版心有刻手名		上下黑魚尾 上下黑口	上下花紋黑尾 上魚尾	
字 體	六朝 歐陽詢		趙松雪 王羲之	王羲之 明朝	
紙 質	楮 褐 蒼白色		楮 藥 精 褐 橫 紋	楮 藥 精 縱 紋	

〈表 17〉 및 〈表 18〉에서 보면, 形態面에서는 麗末과 鮮初에 匡郭의 크기와 形態가 작은 편이어서 小本으로 看做되²³⁰⁾, 成宗 이후부터 점차 커지기 시작하여 中本의 形態를 갖추었으며²³¹⁾, 肅·英·正祖朝에 最大本으로 나타난 것²³²⁾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다만 朝鮮朝 後期에 나타난 袖珍本만은 例外로서, 그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은 科擧用 韻書였기 때문²³³⁾이다.

版式은 高麗時代에는 대체로 無界라고 했으나²³⁴⁾ 有界도 간혹 있으며²³⁵⁾, 작은 上魚尾였²³⁶⁾, 版心 속에 刻手名²³⁷⁾이 적혀져 있으며, 四周單邊, 四周雙邊, 左右雙邊등이었²³⁸⁾, 白口 보다는 黑口 편이 많았다²³⁹⁾고 되어 있다. 壬辰亂 전에는 上下

230-246) 表 17.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古書鑑定の 基準과 表 18. 親筆 메모에 나타난 古書鑑定の 基準 對照.

黑魚尾였고²⁴⁰⁾, 역시 刻手名이 있었으며²⁴¹⁾, 이 역시 四周單邊, 四周雙邊, 左右雙邊이었으며²⁴²⁾, 白口 보다는 黑口가 여전히 많은 편²⁴³⁾이었다. 壬辰亂 후에는 모두 有界였으며²⁴³⁾, 上魚尾가 있었는데 하면 上下 花紋魚尾도 있었고²⁴⁵⁾, 匡郭의 種類나 黑口는 前期와 別差가 없었다.²⁴⁶⁾

字體에 있어서는, 麗末鮮初에는 六朝體와 歐陽詢體로서 그 字體는 蒼勁하고 奇古한 面이 있었으며²⁴⁷⁾, 壬辰亂 전에는 趙松雪體와 王羲之體가 있었다²⁴⁸⁾고 하였는가 하면, 古朴하고, 端雅하며, 滄勁하고²⁴⁹⁾, 歐陽詢體와 비슷하며 精雅하고 古體였다²⁵⁰⁾고 했으니, 그 字體의 傾向을 한 가지 體로 論證하기는 어렵다. 壬辰亂 후에 들어와서는 王羲之體와 明朝體(匠體字)가 있었다²⁵¹⁾고 하였고, 극히 楷正하다²⁵²⁾고 論評하고 있다.

紙質面에서는 高麗에서는 藥精紙와 褐紙를 썼고²⁵³⁾, 壬辰亂 전에는 楮紙와 藥精紙, 壯紙 등을 썼으며²⁵⁴⁾, 橫紋이 있었다²⁵⁵⁾고 하였고, 壬辰亂 후에는 楮紙와 藥精紙로서 縱紋이 있었다²⁵⁶⁾고 하였다.

Ⅶ. 書誌的 記述의 特徵

便宜上 歷代書目 중에서 가장 著名한 書目인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群書標記」²⁵⁷⁾, 「增補文獻備考」중의 '藝文考', 「海東繹史」²⁵⁸⁾중의 '藝文志經籍'과 「清芬室書目」을 書誌的 記述內容의 面에서 比較해 보면 <表 19>와 같다.

<表 19> 「清芬室書目」과 他 書目과의 書誌的 記述內容 對比表(○有, ×無, △混有)

記述內容	書目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群書標記	增補文獻備考藝文考	海東繹史藝文志經籍	清芬室書目
書名		○	○	○	○	○	○
卷冊		△	△	○	△	△	○
著者		○	○	○	○	○	○
官職		○	△	△	△	△	△
字號		○	△	△	△	△	△
父祖名	· 祖名	○	×	×	△	△	△
目的·動機		○	○	○	△	△	△
內容	· 容	×	○	△	×	×	△
所藏	· 藏	×	○	×	×	×	△
紙數		×	○	×	×	×	△

247-256) 表 17. 「清芬室書目」에 나타난 古書鑑定の 基準과 表 18. 親筆 메모에 나타난 古書鑑定の 基準 對照.

257) 正祖 編, 群書標記. 影印本. 서울, 新韓書林, 1970.

258) 韓致雍 撰, 海東繹史. 京城, 光文會, 1912.

校	正	○	○	○	×	×	△
活	字	×	×	○	×	×	○
	序	×	×	○	×	×	○
	跋	×	×	○	×	×	○
傳	來	○	○	×	△	△	△
刊	· 寫	×	×	○	×	×	○
出	版 地	×	○	×	×	×	○
出	版 處	×	×	×	×	×	○
刊	記	×	×	×	×	×	○
匡郭의	種類	×	×	×	×	×	○
匡郭의	크기	×	×	×	×	×	○
界	線	×	×	×	×	×	○
行	字	×	×	×	×	×	○
黑	口	×	×	×	×	×	○
魚	尾	×	×	×	×	×	○
所	藏 印	×	×	×	×	×	○

書誌의 記述內容 面에서 抽出해 본 結果, 「清芬室書目」은 官職名, 動機, 目的, 內容 및 所藏處, 紙數, 校正與否, 傳來過程 등은 있거나 혹은 없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冊의 內容에 대한 解題를 重視한 것은 아닌 듯하다.²⁵⁹⁾

그러나 「清芬室書目」에서 力點을 둔 것은 刊·寫의 區別, 出版地, 出版處, 刊記 등이었으며²⁶⁰⁾, 이를 調査하여 그 資料를 남긴 實績으로는 書法의 體制에 대한 調査였다.²⁶¹⁾

즉 匡郭의 種類, 匡郭의 크기, 界線의 有·無, 行字, 黑口, 魚尾, 印記 등²⁶²⁾이 바로 그것이다.

結 言

이상에서 敍述한 것을 綜合해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1) 「清芬室書目」의 執筆時期과 史的 背景: 「清芬室書目」은 1944年, 즉 지금으로부터 37年 前의 著述이다.

이 時期는 世宗의 文運振興, 正祖의 資料集成의 醜聞 以後로서 清朝의 考證學이 發達됨과 同時에 西洋文化가 直輸入되었고, 列強國의 強占으로 말미암아 民族文化의 啓發에 萎縮을 당했던 時期이다.

더우기 周邊國인 日本에 의해 우리의 固有文化가 抹殺에 가까워도록 萎縮된 時期였던 만큼 從來의 地政學의 位置와 內憂外患에서 우리의 文物이 國內外로 散在되어,

259-262) 表 19. 「清芬室書目」과 他 書目과의 書誌의 記述內容 對比表 參看.

우리 固有文化의 面貌를 찾기 어려운 時期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時期에 「清芬室書目」이 執筆되었다.

2) 鶴山의 生涯와 思想: 「清芬室書目」의 著者 鶴山 李仁榮은 平壤胎生, 全州 李氏 春燮 翁과 林氏 榮燮의 사이에 태어난 7代 獨子로서, 일찌기 徵文高普, 松山高校를 거쳐 京城帝大에서 國史를 專攻, 震檀學會에서 많은 學術的 活動을 함과 同時에 延·普專, 平壤神學校를 거쳐 母校인 京城大學에서 助教授로 있다가, 延禧大學校, 서울大學校 등에서 教授로서 國史를 擔當한 國史學者였다.

그가 태어난 時期가 民族史觀의 擡頭와 實證主義의 學問的 方法論이 交叉混有 되었던 時期인 만큼, 初期에는 考證을 要하는 實證主義史觀에서 史學과 書誌學을 研究했고, 後期에 와서는 理論을 追究한 謙谷 朴殷植과 丹齋 申采浩의 影響을 받아 新民族主義史觀을 確立한 學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書誌學 上에 있어서의 鶴山의 位置는 實로 獨步의 存在일 만큼 著名한 學者 중의 一人이었다. 그의 著述을 通해 보면 袖珍本의 規定, 古書의 貴重本 規定, 高麗版의 特色, 木板本의 印刷, 大邱地方의 古書出版地 등을 究明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宋·元의 覆刻本이 橫行되던 때와 時期를 달리하여 日本의 正中本이 들어온 經緯를 說明하였는가 하면, 板本과 그 解題에 대한 論述은 勿論, 活字研究도 相當히 많이 하였다.

그 중에서도 「禮記殘見錄」覆刻本과 對比해 낸 癸未字本의 標本의 抽出 등은 有名한 일이다.

3) 「清芬室書目」執筆의 動機: 이 書目은 1937年 鶴山이 大學을 卒業할 때부터 史學研究의 補助科學이 書誌學이라고 하는 立場에서 出發하여, 書籍商, 古書店, 嶺南 各處의 傳來本 중에서도 貴重本에 속하는 것들을 對象으로 古書を 蒐集한 데서 그 執筆의 動機가 비롯되었다.

4) 收錄範圍와 編成體制: 上限으로는 高麗 高宗 9年을 起點으로 하고 下限으로는 光武 4年을 終點으로 하였으니, 收錄範圍는 實로 約 700年 間의 典籍이며, 調査한 書籍도 540種 3097卷 1444冊 2軸 25帖이다.

그 중에는 「西河先生集」外 8種과 刊年 未詳分 多種 등 高麗本이 包含되어 있다.

이 書目的 編成은 주로 壬辰亂 前後를 時期로 劃分하고, 刻本, 抄本, 活字本, 刊本 등의 板本을 區分하였는가 하면 韓國人 著述, 外國人 著述로 兩分하였다.

記述의 形式을 보면, 書名, 卷冊數, 刊行時期, 刊行地, 刊行處, 活字名, 著者事項, 匡郭의 種類, 界, 行字, 匡郭의 크기, 黑口, 魚尾, 紙質, 刻手名, 避諱, 印記,

助緣事項, 冊價, 購入處, 引用, 按 등으로 되어 있다.

5) 內容과 性格 : 모든 典籍을 經, 史, 子, 集으로 類別해서 編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取扱된 典籍을 보면, 大體로 內容目次와 內容解題, 淵源, 傳記, 校勘, 評, 勸讀 등으로 解題된 것도 없지는 않으나, 實은 板本과 刊年을 重視한 形態書誌學的인 側面에 力點을 둔 것이다.

6) 刊年의 推定과 그 基準 : 특히 540種을 통해 본 調查에서 그를 統計的으로 抽出해 보면 大略 <表 20>과 같은 現象이 나타나므로, 혹 이것이 그가 刊年을 推定하는데 基準을 이룬 資料가 아닌가 생각된다.

<表 20> 鶴山의 古書鑑定의 基準

事項	時代	高	麗	壬辰亂前	壬辰亂後	備	考
A 匡郭의 種類		左右雙邊 四周單邊 四周雙邊		左右雙邊 四周單邊 四周雙邊	左右雙邊 四周單邊 四周雙邊		
B 匡郭의 크기		小		漸大 (成宗以後)	大	睿宗朝 : 極大 肅宗·英祖·正祖時 : 最大 袖珍本 : 科學用韻書	
C 界		無>有		無<有	有	高麗는 거의 無	
D 行字		小		小	多		
E 黑口		黑口>白口		黑口>白口 上下黑口	黑口>白口		
F 魚尾		上魚尾 小魚尾		上下魚尾 黑魚尾	上魚尾 上下花紋魚尾		
G 紙質		楮 褐 蒼白色		楮 藁精 壯 橫紋	楮 藁精 北黃 唐 縱紋		
H 刻手		有(版心)		有	無		
I 字體		六朝 歐陽詢 蒼勁 奇古		趙松雪 王羲之 古朴 端雅 遒勁 似歐陽 精雅 古體	王羲之 明朝 極楷正		

J 避諱

武堯斌

☆ 高麗諱
☆ 武

☆ 部分은 혹 이 刻本 覆
아닌가 생각되나 淸芬室
書目]속에 이의 明示가
없으므로 記入한 것임

K 活字

癸未字
庚子字
甲寅字
庚午字
乙亥字
乙酉字
甲辰字
癸丑字
丙子字
改鑄甲寅字

芸閣活字
丁酉字
生生字
整理字
雲峴活字

〈表 20〉에서 提示된 것처럼, 鶴山의 古書鑑定의 基準은 高麗에는 古書의 形態가 다른 時期에 比해서 小本이었으며, 成宗 以後에 차츰 커지기 시작하여 肅宗, 英祖, 正祖時에 最大였고, 版式도 高麗時代에는 無界, 小型 上魚尾, 版心에 刻手名 등이 있었고, 朝鮮朝에 들어와서도 壬辰亂 前에는 上下魚尾에 上下黑魚尾로 되었고, 壬辰亂後에 이르러서야 上下 花紋魚尾, 上魚尾 등이 있었다는 點이다. 字體에서도 麗代에 險勁한 歐陽詢體, 壬辰亂 前의 王羲之體, 趙松雪體 類, 壬辰亂 後에는 匠體字 (明朝體)의 登場이 瞭然하였고, 紙質에 있어서도 高麗의 褐紙, 楮紙와 壬辰亂 前에서 의 褐紙, 橫紋의 藥精紙, 壬辰亂 以後의 縱紋의 藥精紙와 楮紙의 出現 등은 注視의 對象이 되고 있다.

7) 書誌的 記述의 特徵 : 끝으로, 이 書目은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群書標記」, 「增補文獻備考」중의 「藝文考」, 「海東釋史」중의 「藝文志經籍」과 書誌的 記述 內容을 比較해 본 結果, 官職名, 動機, 目的, 內容, 所藏處, 校正與否, 傳來過程 등은 있어도 그리 重視한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刊·寫의 區別, 出版地, 出版處, 刊記, 匡郭의 種類, 匡郭의 크기, 界, 行字, 黑口, 魚尾, 紙質, 印記 등 이른바 對照事項에 該當되는 部分을 重視하여 調査한 點이 特徵이다. 〈끝〉

〈參 考 文 獻〉

1. 屈萬里, 昌彼得 共著. 圖書板本學要略.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 67(1978).
2. 金 然. 海東文獻總錄. 影印本. 서울, 學文閣, 1969.
3. 徐有渠 編, 洪命燾 校訂. 鏤板考,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 16 (1941).
4. 李仁榮. 國史要論. 서울, 民敎社, 1956.
5. 李仁榮.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寶蓮閣, 1968.
6. 李仁榮. 韓國滿州關係史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48.
7. 韓非木. 四庫之門. 臺北, 中華書局, 民國 46(1958).